

## 4. 줄다리기 개요

### 4.1. 명칭

줄다리기는 크메르어로 테안 프룻(teanh prot)이라고 부른다. 테안(teanh)이란 ‘당기다’라는 뜻이며, 프룻(prot)은 ‘줄’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줄은 물소나 암소의 가죽을 엮어 만들었다.<sup>1</sup> 따라서 테안 프룻의 본래 의미는 ‘물소나 암소의 가죽을 엮어서 만든 줄다리기’이다(프룻이라는 용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러나 보통 간단하게 ‘줄다리기’라고 표현한다.

### 4.2. 연행 시기

줄다리기는 설 명절과 즐룽 쳇이라는 전통 축제에서 연행하는 놀이 의식이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줄다리기는 주로 오후에 연행된다.

#### 4.2.1. 설 명절

캄보디아의 설 명절은 태국과 라오스의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4월 중순에 사흘 동안 이어진다. 설 명절 기간 중 어느 한 날 줄다리기가 연행되는데, 오늘날에는 보통 둘째 또는 셋째 날에 연행된다. 물론 전통적으로 첫날 연행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명절 기간 중 셋째 날은 줄다리기 놀이의 마지막 날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날을 가리켜 ‘축제가 끝나는 날(thngay tras)’ 또는 ‘뱃줄을 끊는 날(thngay phdach prot)’이라고 부른다. 특히 후자의 경우, 줄다리기 의식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날에는 뱃줄을 물리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끊는 의식을 벌인다(그림 4.6). 일부 마을 사람들은 축제의 마지막 날 줄다리기를 연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과 뱃줄 끊기 중요성은 프다츠 프룻(phdach prot)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이 말은 놀이, 시합, 경기 중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 뱃줄을 끊는 행위는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이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뱃줄 끊기란 묵은해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sup>1</sup> 보통 세 줄의 가죽 끈을 엮어 만들었다.

#### 4.2.2. 흘롱 췌(Chlong Chet)

‘흘롱(chlong)’은 크메르어로 ‘건너다’라는 뜻이다. ‘췌(chet)’은 캄보디아의 음력 5월을 가리킨다. 음력 5월은 목은해의 마지막 달인 동시에 새해를 축하하는 달이다. ‘흘롱 췌(chlong chet)’이란 ‘음력 5월을 건너다’라는 뜻이며, 그 의미를 확장하면 새해의 새 달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목은해를 지나 새해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해의 경과’라는 뜻의 크메르어 ‘흘롱 츠남(chlong chnam)’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전자는 캄보디아의 북부 지방에서 주로 쓰이며, 후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두 표현이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흘롱 췌는 새로운 벼농사 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시로 설 명절 직후 치르는 의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의식은 정해진 날짜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각 마을은 주민들의 동의 하에 날짜를 정한다. 각 마을 주민들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주민회관(마을을 수호하는 정령이 머무는 사당 옆에 위치)에서 의식을 치른다. 이 의식이 끝나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논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그림 5와 6). 마을 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해 지역의 수호신들에게 농사일을 허락받고, 벼락<sup>2</sup>과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며, 풍작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다.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지역 수호신의 사당에 뱀씨 꾸러미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그림 7). 뿐만 아니라, 쌀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다고 여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뱀씨는 ‘완전한 영혼’을 지녀야 한다. 그녀<sup>3</sup>는 건강해야 하고, 그녀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도 치른다(그림 8). 많은 경우에 있어, 흘롱 췌는 농사 주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왕실에서 매년 기리는 왕실 쟁기 축제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9). 이 의식은 보통 오후에 시작되어 다음날 정오 이전에 끝난다. 오후에는 줄다리기 시합이 벌어진다. 중요한 것은 줄다리기 경기 중에 밧줄이 물리적 또는 상징적으로 끊어진다는 것이다. 밧줄 끊기는 하나의 벼농사 주기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됨을 상징한다.

#### 4.3. 연행 장소

설날에는 줄다리를 불교사원에서 연행한다. 사원은 줄다리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라고

<sup>2</sup> 매년 상당수의 사람들이 벼락에 맞아 사망한다. 다음은 지역 영자 신문 캄보디아 데일리의 2013년 3월 13일 기사이다.

캄보디아 재난관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인구 100만 명당 7.8명이 벼락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1년 165명, 2010년 114명, 2009년 140명, 2008년 95명, 2007년 45명을 더해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인구 수 1,440만 명으로 나눈 수치다. 2012년의 경우, 아직 최종 사망자 수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9개월 동안 벼락에 의한 사망자 수가 이미 100명에 달했다. 이는 사망 신고를 집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만을 언급한 것임을 밝힌다.

<sup>3</sup> 여성으로 의인화된 쌀은 프로페이 부인(neang propey)이라고 불린다.

할 수 있다. 줄다리기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및 사회 활동을 치르기 위한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그림 7). 줄다리기는 마을의 공간(그림 8)에서도 연행할 수 있으며, 민속놀이를 비롯한 대규모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는 한 어느 누구의 집 앞에서도 연행할 수 있다(그림 9).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3년 출렁 쳇 축제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팀은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곳인 사당 앞에서도 줄다리기를 연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4.4. 줄의 재료

사원 위원회 또는 마을의 원로들은 설날 또는 출렁 쳇 축제 전이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밧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프롯(prot)이란 물소나 암소의 가죽<sup>4</sup>으로 만든 밧줄이지만,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밧줄은 근처 숲에서 베어온 덩굴이나 사탕야자 나무의 줄기를 엮어 만든다.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밧줄을 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팀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시엠립 지역에 위치한 캄보 오르 불교사원의 경우, 마을 사람들이 숲에 가서 덩굴을 구하려고 했지만 축제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되도록 줄이 준비되지 않았다. 사원 위원회의 한 위원이 조사팀에게 줄이 없으면 줄다리기를 연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에서 밧줄을 구입한 뒤 사원으로 가져와 줄다리기 경기를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현장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실제로 덩굴을 볼 기회는 없었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밧줄이 사용되었을 뿐이다(그림 13).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길이는 15~50m에 이른다. 밧줄이 너무 짧으면 두세 줄을 함께 엮어 사용한다.

#### 4.5. 참가 선수

줄다리기 팀은 10~50명이 한 팀을 이루며, 성별에 따라 팀을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의 연령대는 25~60세에 이른다. 혼성팀이 벌이는 경기에는 8~60세에 이르는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다.

시엠립 주, 치크렝 군, 스페안 트눓 군, 츠레스 마을에서는 주로 기혼의 여성과 남성으로 나뉜 두 팀이 줄다리기를 벌였다(그림 14). 캄보 오르 마을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전 연령대가 참가하는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심지어 노령의 남성과 여성들도 경기에 참가했다. 반테이 스레이 불교사원이 주관한 출렁 쳇 축제에서는 남녀노소 구분

<sup>4</sup>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밧줄은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동물 가죽으로 밧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은 바가 있다.

없이 이루어진 팀들이 줄다리기 경기를 펼쳤다(그림 15~19).

줄다리기는 보통 한 명의 심판을 두지만, 경우에 따라 두 명을 두기도 한다. 심판은 마을 원로들 중 지원자가 맡기도 하지만 경기에 참석한 팀원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20). 심판이 두 명일 경우, 남성과 여성을 한 명씩 뽑아 각 팀을 대표하도록 한다(그림 21).

#### 4.6. 줄다리기 방법

오후가 되면 줄을 경기장으로 가져온다. 경기장 가운데 양팀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긋거나 줄 중간에 색깔이 들어간 끈을 묶는다(그림 22).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양 팀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편에 늘어선 줄을 잡아든다. 그러면 심판(들)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며 경기의 시작을 알린다. 심판이 ‘*yak or*’ 라고 세 번 외쳐 팀원들이 준비 자세를 취하도록 격려하면, 양팀은 심판의 외침에 대한 답으로 ‘*heouy*’ 라고 외친다. 이 외침은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롱 사원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줄다리기와 함께 악기 연주가 동반된다(그림 23). 현지조사에 따르면 고수와 현악기 연주자가 경기에 참석한다. 고수는 줄다리기 경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심판이 사기를 진작하거나 숫자를 센 뒤 경기를 시작하면, 참가자들은 줄을 잡아 당기기 시작하고 고수는 북을 두드려 각 팀을 응원했다. 북소리는 한 팀이 이길 때까지 계속되었다. 현악기는 선수들과 관중들이 노래와 춤을 출 때 연주되었다(그림 24).

줄다리기는 상대팀을 경계선을 넘어 자기편 쪽으로 끌어 당긴 팀이 승리하게 된다. 경기가 끝나면 승리(Achar)가 밧줄의 한 가운데를 자른다. 그러나 양팀이 당기는 힘 때문에 경기 도중 밧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시장에서 밧줄을 구입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는 밧줄을 자르지 않고 상징적으로 밧줄을 끊는 의식으로 대신한다. 밧줄 끊기 의식이 끝나면 다음 해 경기를 위해 밧줄을 사원에 보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밧줄 끊기라는 뜻의 *phdach prot*은 줄다리기 의식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사회종교적 관습상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4.1에서 언급했듯이, *phdach prot*이라는 표현은 *teanh pror*에서 유래했으며, 경기, 시험, 대회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

#### 4.7. 줄다리기 승패와 내기

줄다리기의 승패와 관련하여 정해진 상벌은 없다. 그러나 승리한 팀원들이 패배한

팀원들의 몸에 자신들의 엉덩이를 비비며 흙을 떨어내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그림 25~27). 이 행동은 크메르어로 ket이라고 부른다. 내기에 따른 이와 같은 ‘별’은 상징적으로 기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6.3 참조). 보통 이성끼리 몸을 비비는 것은 관습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설 명절과 즐롱 췌 축제 기간, 특히 줄다리기 경기 도중에는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 마을 사람들은 “줄다리기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경기에 참가한다면 화내지 마라!”고 말한다.

## 5. 줄다리기의 역사적 배경

섹션 3과 4는 현재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줄다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다리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문화 속에서 줄다리기의 근원과 그 영감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유일하게 전해 내려오는 줄다리기 연관 설화와 그 내용이 집약된 성상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5.1. 줄다리기 관련 설화

모아 메이 씨는 덕망 높은 고(故) 퉁 스님으로부터 줄다리기 관련 설화를 전해 들었다. 메이 씨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1953년 캄보디아의 문화 학술지 「Kampuch Surya」에 실렸다. 이 이야기는 줄다리기와 관련된 유일한 기록물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다.<sup>5</sup>

#### 5.1.1. (설화 내용 번역)

어느 날 신을 질투하는 한 무리의 악마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신은 악마보다 힘이 약하면서도 에이소르(시바) 신의 가호를 받아 더 높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악마들은 또한 신들과 힘을 겨루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악마들의 불평을 전해들은 신들은 “악마여, 우리는 몸집이 더 큰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힘겨루기를 하고 싶다면 응해 주겠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응수했다.

악마와 신들은 밧줄을 당겨 힘을 겨루기로 했다. 악마들은 자신들이 이길

<sup>5</sup> 불교연구소, 「Kampuch Surya」, (프놈펜, 불교연구소, 1953), pp. 547-549